로컬플러스

익산경찰서-동주민센터 간담회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주민을 위한 공감치안의 일환으로 최근 인사발령으로 인해 새로이 전입한 관내 4개 동주민센터(중앙동·남중동·모현동·송학동)와 지난 26일 소소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용대 중앙지구대장과 김성도 모현동장 등 5명이 참석하였으며, 경찰과 동주민센터간 긴밀한 협조로 평온한 생활치안을 확보하고 더불어 말로만의 소통과 현장행정이 아닌 수요자에 귀기울이는 경청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치안협력을 이어가길 당부하고 동장들로부터 주민을 대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

군산시가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보고 및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시는 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군산시보건소와 함께 평일 야간과 휴일까지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한다.

비상근무반은 식중독 예방활동과 함께 식중독 발생 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역학조사반 가동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식중독 확산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오숙자 식품위생과장은 "봄철에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손씻기, 음식물 익혀먹기, 물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회의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문동신, 정윤모)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6년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표협의체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복지 비전인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 군산 만들기' 구현을 위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심의 했다.

이 자리에서 문동신 시장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 확대로 사회복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시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더민주 총선 후보 3파전

신영대 전 민주당 부대변인·조성원 변호사·김명곤 금융노조부위원장

더불어 민주당의 군산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짓기 위한 경선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더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치열한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심사를 마친 3명의 후보는 신영대 전 민주당 부대변인(48)과 조성원 변호사(40), 김명곤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부위원장(47) 등이다.

신 전 부대변인은 지난 1일, 조 변호사와 김 부위원장은 각각 5일과 15일에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4년 전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는 신 전 보좌관은 국회 보좌관과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바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또 전남대 법학 전문대학원 석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청윤대표와 비법인사단 구불길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교보생명 노조위원장을 연거푸 두 차례 지낸 바 있으며, 현재 사회연대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함운경 후보의 민주당 복당설도 조심스럽게 나돌아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오는 4월 총선에서 현역인 국민의 당 김관영 의원에 맞설 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략공천이 없는 한 사실상 이들 예비후보 가운데 본선에 나설 더 민주당 총선 주자를 고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탈당 지역은 당 소속 인사들이 많이 뛰는 지역이라 이 사람들을 함부로 배제한 채 전략공천할 수 없기에 경선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전략공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역의원이 탈당한 지역구의 경우 인재영입 케이스로 입당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략 공천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군산지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 김관영 의원과 맞서 당선이 가능한 경쟁력을 갖춰야하기에 더욱 그렇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더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전략공천에 대해 자신보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 민주당의 한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전략공천할 인물이 자신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 입증되면 충분히 수용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지정

가람갈비·장수곰탕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함량보다 10% 이상 줄여

익산시 일반음식점 2개소(가람갈비, 장수곰탕)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으로 지정 됐다.

지정된 업소는 2015년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시범으로 나트륨 줄이기 사업에 협력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나트륨 기준함량(3900㎎ : 소금 9g)을 10% 이상 줄인 업소이다.

익산시의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홍보물 제작 배부, 위생교육 등을 통해 외식업 익산시 지부 및 음식업주의 협력으로 2017년까지 성인 1일 나트륨 섭취량을 3900㎎(소금 9g) 이하로 낮출 것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의 지정기간은 1년이며 저감메뉴에 대한 년 2회 모니터링 결과 지정 당시의 나트륨 함량기준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지정을 유지하게 된다.

시는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의 저염식을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조리 전문가의 메뉴 개발지원과 나트륨 줄이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익산시 박종환 식품위생과장은 "세계보건기구의 성인 1일 나트륨 섭취권장량 2000㎎ 보다 2배 이상 많이 섭취하는 우리의 음식문화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므로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내달부터 버스정류장 금연구역으로 지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흡연자들의 불편함을 덜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군산시는 3월 1일부터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의거 버스정류소 89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은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전주, 완주에 이어 세 번째로 군산시가 시행하게 된다.

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버스정류장 금연표지판에서 1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도시공원 및 금연거리 지정 등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농협 32억여 조합원에 통큰배당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옥)은 국내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대폭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수익사업 다각화를 통해 지난 한 해 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익산농협은 이에 따라 7,3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32억 3천만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익산농협은 지난 24일(수)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고객, 조합원, 대의원,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4기 결산총회'를 개최하여 '15년 결산보고 및 의결, 각 사업부분 시상, 임원선거를 가졌다.

익산농협에 따르면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 36억원의 당기순이익의 실적을 올려 전기이월금 10억 2천만원을 합쳐 총 46억 2천만원의 잉여금으로 법정적립 4억 6천만원, 차기이월금 9억 2천만을 적립했다.

그리고 7,300여명의 익산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자배당 4.23%, 사업이용 실적배당 3.84% 및 사업준비금 9억 2천만원을 지분 적립하여 총 배당률은 11.3%인 32억 3천만원을 배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익산농협 임기만료 임원선거에서는 양옥용이사, 이종영이사, 최병운이사, 오수만이사 등 4명이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

신임 이사들은 조합원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양원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 보육교사 지원 공약

국민의당 정헌율(사진) 익산시장 예비후보(이하 정 후보)는 지난 26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인상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 후보는 "최근 보육교사의 도덕적 자질 문제가 대두되어 그 해결법을 고민하던 중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해 사회적 예우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민하게 되었다"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이 선결과제이고 이후 그에 걸맞은 전문성과 강도 높은 책임감을 요구할 것이다"

"익산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검토하고 이를 전북 평균수준으로 인상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 후보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교원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인성교육 강화와 교육프로그램의 의무적 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이 뛰어난 보육교사를 육성·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명품맛집 발굴 관광객 편의·서비스 제공

군산시가 동북아 거점 명품도시에 걸맞은 명품맛집 발굴에 나선다.

시는 신규 맛집을 발굴해 특색 있는 먹을거리를 선보이고 지역 음식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맛집 선정은 개업 후 3년이 경과된 업소로 메뉴의 전문성, 음식 맛, 가격의 적정성 및 위치 접근성, 식재료 신선도, 위생상태, 영업주 마인드 등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맛집 신청은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영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와 군산시 외식업지부의 추천 또는 소비자단체, 일반시민 설문을 통해 진행 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맛집은 지정증 수여 및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군산시 홈페이지 및 홍보 책자에도 소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식품위생과(☎063-454-342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